

四國 어촌민가의 마치야 (町屋) 형식의 평면특성

- 일본 德島縣 海部町 鞆浦 東町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Plan of Machiya Form of Fishing Village House in the Shikoku District

- Focused on Higashimachi Area of Tomoura, Kaifu-cho, Tokushima Prefecture in Japan -

박 찬*

Park, Chan

김정균**

Kim, Jeong-G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 of fishing village house in the Shikoku district.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field survey and measurement of the traditional house and street system in Higashimachi area of Tomour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raditional house of Higashimachi area is to be taking the plan of Machiya form that is the residence form of a city without being related a fishing village. And the street system is as orderly comparatively as a city. This is not the thing as that is surprised when we think the fact that Higashimachi area has maintained close relation historically with Kyoto, Osaka, etc. However, as for the house of Higashimachi area, the scale is smaller in comparison with Machiya,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erms of the house for the exclusive use of residence. Machiya is the dual constitution of business space and life space. To it the house of Higashimachi area is doing the unitary constitution. Mise is the original opening device (a kind of the front door fitting) of traditional house of Higashimachi area and has the functions that complement narrow space and offer community space. Finally, the traditional house in this area is equipped with all the residence functions of necessary minimums, although the scale of the residence is small. It is said that this is the case of a 'small residence' in a Japanese residence.

Keywords : Plan, Fishing Village House, Shikoku District, Machiya, Traditional House

주 요 어 : 평면, 어촌민가, 시코쿠(四國), 마치야(町屋), 전통민가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지역성이란, 지역마다 다른 기후, 풍토, 역사, 문화, 산업, 경제,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지역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제 조건들은 그 지역의 주생활, 주양식, 주거관 등에 영향을 끼쳐서 지역별로 특징이 서로 다른 주거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주거에 있어서 지역성은 오늘날, 획일화된 주거문화를 개선하려는 움직임, 곧 다양한 주거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과 함께,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역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곧 주거에 있어서의 지역성이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¹⁾의 예를 들어 그 실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연구는 일본의 시코쿠(四國) 동남부, 태평양 연안 한 어촌의 민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민가는 지역성이라는 시각에서, 비교적 뚜렷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지방의 작은 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소재하는 민가는 마치야(町屋)의 평면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야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전형적인 도시주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 연구는 우선 그것이 확실히 지역적인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특징의 내용이 무엇 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어촌에 마치야의 평면형식을 취한 민가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인가, 둘째 그러한 민가의 평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그것은 일반적인 어촌민가와 어떻게 다르고, 또한 마치야와는 얼마나 같고 다른가 하는 점 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지역의 민가는 그동안, 미세(店)라고 불리는, 지역 특유의 개구부 부설장치의 존재에 의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미세는 일종의 덧문으로 펼치면 쪽마루의 기능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전남대학교(여수) 공학대학 건축학과 조교수

**정회원, 鳴門教育大學(日本소재) 生活/健康系教育講座 助教授

1) 일반적으로 일본의 주거문화에 있어서 지역성의 존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남북으로 긴 열도 상에, 지역별로 다양한 특징을 띠는 주거문화가 건축학을 비롯하여, 지리학, 민속학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검증되고 있다.

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그러나 평면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연구도 미세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상기와 같은 논점에 답을 주는 선행연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토쿠시마켄(德島縣) 남쪽해안의 어촌마을 중에서, 카이후쥬(海部町) 토모우라(鞆浦)를 중심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평면이 마치야 형식인 민가가 집중되어 있는 히가시마치(東町)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개수/개조되거나 헐고 다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전통민가의 면모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남기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원형을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전체 78호 중에서, 심하지 않은 것, 곧 전통의 면모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면, 총 21호의 민가가 조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표 1 참조). 건립 연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고, 거주자의 증언에 의하면 대략 100-200년 전³⁾ 사이에 건립된 것이라고 한다. 20세기초기까지는 단층이었던 것이,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2층이 증설되었다. 따라서 본논문은 1층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 및 분석은 ① 마을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민가의 평면을 조사하고자 하지만, 개별민가의 기반을 이루는 마을의 집주형태, 가로 체계/공간 등은 기본적인 조사사항이다. 사전에 [주택지도]등의 기초 자료를 통하여 세부조사계획을 세우고, 현지에서는 도로와 건물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구조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가로폭 등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은 실측한다. ② 민가의 평면에 대해서는, 각 민가별로 부지, 평면규모, 평면구성을 조사한다. 평면규모는 정면, 측면의 칸수와 칸장 그리고 전장을 실측한다. 평면구성은 평면상 실의 구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평면도는 대표 유형을 선정하여 실측 작성한다. ③ 이 지역 민가의 특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세의 존재가 평면과 특별한 연관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마치야에서는 내부의 거주공간과 외부의 가로공간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미세는 그 경계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미세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부 거주공간에서의 의미, 외부 가로공간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 고찰한다. 이상과 같은 조사는 2005년 7월 3일에 예비조사, 2006년 2월 22에 본조사, 그리고 동년 6월 27일에 보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표 1. 東町 민가의 평면규모와 형식

번호	성명	주소	정면칸수 및 칸장				정면장	측면칸수	측면장	평면형식	건립연대
			①	②	③	④					
1	近藤 計男	東町 137	1430	1550	1780	-	4760	4	7300	토오리니와형	100여년전
2	?	"	1450	1570	2150	-	5170	3	5820	짧은토오리니와형	"
3	?	"	1030	1630	1630	-	4290	2.5	4050	짧은토오리니와형	"
4	近藤 純一	"	900	1940	1980	2060	6880	3	4450	짧은토오리니와형	"
5	山本 修三	" 91	1070	2000	2060	-	5130	3	4500	짧은토오리니와형	"
6	山口 忠一	" 89	1850	1580	2600	-	6030	3	5800	짧은토오리니와형	"
7	瀬本三千夫	"	1280	1640	1500	850	5270	3	5700	짧은토오리니와형	"
8	山本 延次	" 46	600	1270	1470	1480	4820	3	5430	짧은토오리니와형	"
9	龜山 堯玄	" 82	2320	1840	1630	-	5790	5	8950	짧은토오리니와형	"
10	多田 三郎	" 39	1740	1800	500	-	4040	5	9270	토오리니와형	"
11	中野 哲治	" 60	2000	1340	1750	-	5090	2.5	4030	짧은토오리니와형	"
12	中野 重吉	" 62	1980	1610	-	-	3590	4	7620	토오리니와형	"
13	西宮 やすえ	" 59	1250	1670	1540	-	4240	6	12650	토오리니와형	"
14	山本 政吉	" 58	1700	2000	1920	-	5620	2.5	4140	짧은토오리니와형	"
15	左海 縁郎	" 55	490	1570	1830	-	3890	2.5	4070	짧은토오리니와형	"
16	黒住 正	" 40	1900	1570	1200	-	4670	3	4630	짧은토오리니와형	"
17	龜山 ミサヲ	" 78	1950	2020	700	-	4670	3.5	5980	짧은토오리니와형	"
18	西宮 康之	"	1540	1990	710	-	4460	3	5030	짧은토오리니와형	120년전
19	三浦 忠室	" 136	6100	2400	2030	-	10530	4.5	8200	짧은토오리니와형	"
20	貝塚孝	" 68	2280	1660	2030	-	5970	4	6750	짧은토오리니와형	"
21	花野 元久	"	2040	2040	-	-	4080	5.5	11200	토오리니와형	1806년

주) 칸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개수/개조할 때 면적의 증대를 위해 기둥을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2) 일본어의 표기에 있어서는 장음에 ‘-’의 부호를 부가하는 방법을 채용하여 장단음을 구별하기로 한다.

3) 재해기록을 살펴보면, 히가시마치는 1742년 대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하며(多善寺 기록). 1763년의 화재에는 히가시마치를 포함한 토모우라 전체에서 총233동이 소실되었다고 한다(海部郡誌). 이후에도 홍수, 태풍, 지진 등이 있었으므로, 건립연대는 대략 24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조사는, 전술한 바 있는 논점들 중에서, 두 번째의 논점 곧 평면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항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는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인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논점에 관해서는 기존의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다. 도시가 아닌 어촌에서 도시주택인 마치야의 평면형식을 채용하고 있는 점이 일본주택 분야 전체에서 특징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일반적인 어촌민가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촌민가의 일반적인 평면형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민가가 도시의 마치야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일반적인 마치야의 평면형식을 살펴본다.

II. 본 론

1. 조사 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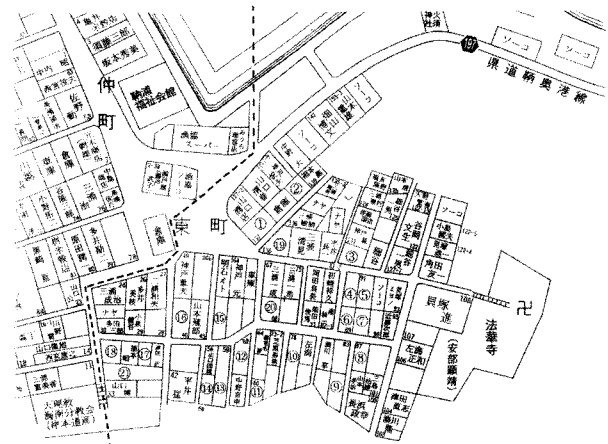
1) 역사·인문환경

토모우라(柄浦)는 토쿠시마켄(德島縣)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어촌으로, 3세기 고분시대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다. 중세부터 대외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카이부카와(海部川) 유역의 물자 집산항의 역할을 담당하면서였다. 시코쿠 내에서 한신(阪神: 大阪/神戸)의 약칭, 고래로 도성 京都의 외항(外港)지역과 직접 교역을 해 온 몇 되지 않는 항구 중에 하나였으며⁴⁾, 토쿠시마반(德島藩)의 수군(水軍) 곧 아와(阿波)수군의 연락항이었다. 오래전부터 토모우라의 사람들은 본업인 어로작업 이외에, 큰 배를 몰고 도성 또는 도성에 가까운 제항구와 활발한 교역활동에도 종사해 왔던 것이다. 16세기 말경(江戸시대 중기)에 들어서서 토모우라는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카이부카와 유역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산림자원이 오랫동안 미개발의 상태로 있다가, 세정이 안정되고 경제개발의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비로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근세에 들어서서는 인근에 오쿠우라(奥浦)라고 하는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어, 지역의 해상교통과 경제에 있어서 중심적인 지위를 물려주기도 하였지만, 근대에 들어서서 육로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시 교통의 요지로서 부각되었다.

현재의 토모우라는 東町, 南町, 仲町, 北町, 立岩, 高倉 등의 여섯 동네(町)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히가시마치(東町)는 출어에 편리한 바다와 강어귀 가까이 위치하고, 동쪽, 남쪽, 북쪽의 세 방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바닷가에 면해 있지만 해일(深波)과 고조(高潮), 홍수 등의 걱정이 거의 없는 천혜의 장소에 위치하므로 토모우라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모여 산 지역이다. 중세

4) 「阿波古地圖」(1646년, 國立史料館藏)에 표시되어 있는 항로도에 의하면, 柄浦는 이 지역에서 중심도시인 德島 이외에, 大阪과 항로가 직접 연결된 유일한 마을이었다.

5) ‘藩’은 중세 藩政期 봉건지배체제 하에서 지방정부를 뜻하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대부분 근대에 현제의 지방행정단위인 ‘縣’으로 전환되었다. 곧 ‘德島藩’은 오늘날의 ‘德島縣’에 해당한다.



주) [주택지도]상의 東町이며, 번호는 조사대상민가의 고유번호(표 1)를 가리킨다.

그림 1. 鞆浦/東町와 조사대상민가의 위치

에는 토쿠시마반(德島藩)의 수군, 곧 아와(阿波)수군의 집락(集落)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2) 자연환경

이 지방의 연평균기온은 16.1℃이며, 다우지역으로 연강수량이 평균 2604mm에 달한다. 해안지역이므로 바람이 많으며, 여름철에는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빈번히 통과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바닷가까지 산자락이 이어져 평지가 적다.

2. 히가시마치의 집주형태와 가로체계

1) 집주형태

마을은 바닷가에 면한 구릉 사이, 좁고 낮은 지대에 자그마한 만을 끼고 자리 잡고 있다. 해안가를 따라서 간선도로(인근지역에의 연결도로)가 나있으며 마을 안으로는 간선도로에서 분기된 몇 개의 도로가 주요가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각 민가는 더 세분화 된 가로를 따라서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가로망은 방향의 블록을 단위로 하여 비교적 정연한 구성을 하고 있다. 각 민가의 부지는 이를 토대로 형성되어 있고, 평면은 거의 빈틈없이 부지와 일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로에 면한 전면에 출입구(현관)를 설치하고, 측면은 옆집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전형적인 마치야의 집주형태이다. 히가시마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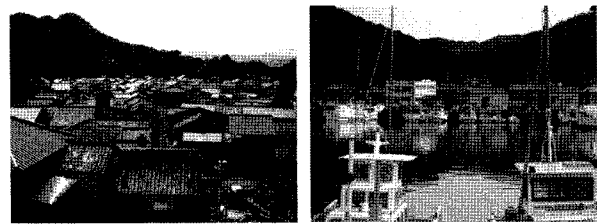


그림 2. 집주형태

6) 이와 같이 수군이 모여서 거주하는 집단거주지를 ‘加子屋敷’라고 한다. 유사시 신속한 징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군의 거점이 되는 항구에 강제적으로 집단 거주시켰다.

오랫동안 자연 발생적인 집락형태를 유지해 오다가, 지역 수군의 집단거주지로 지정되면서, 가로와 부지의 기본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대화재가 몇 번 발생하였는데, 그 때마다 구획정리를 행한 결과 지금과 같이 비교적 정연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2) 가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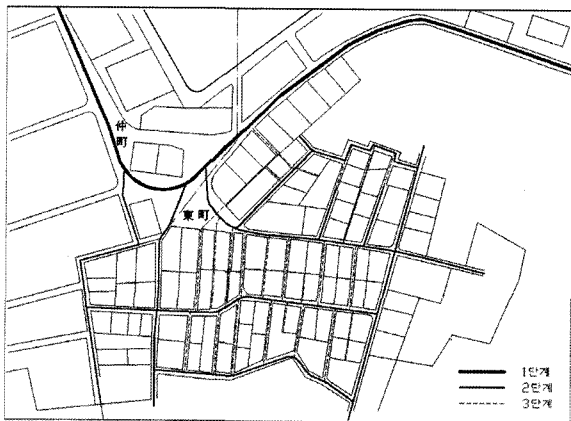
히가시마치의 가로는 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과의 소통, 건물간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면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4종류는 서로 뚜렷한 위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가로체계는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단계, 접근도로: 인근지역과 직접 소통되는 지역의 간선도로(幹線道路)이다. 이러한 도로는 현재 ‘코쿠토(國道)’라는 명칭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토모우라의 경우도 그러하다. 차량이 대향 통행할 수 있는 폭(왕복2차선)을 기본으로 하지만, 지형적인 제약 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좁아진 구간도 생긴다.

2단계, 진입로: 간선도로에서 각 민가의 현관까지 이르는 도로이다. 각 민가의 전면을 연결하며, 전체적으로 마을 가로망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측치에 의하면 폭은 일정하지 않고 대략 1.5-2.5미터의 범위에 속한다. 이 폭은 오늘날의 자동차통행 기준으로 한다면, 차량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에 해당한다. 현지에서는 ‘쇼-로(小路)’라고 불린다.

3단계, 보조로: 진입로는 각 민가의 전면을 횡으로 연결하는데, 보조로는 진입로에서 직각 방향, 즉 민가의 측면을 따라서 분기된다. 폭이 0.7-1.2미터 정도로 1인/2인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이다. 현관이 이 통로에 면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진입로의 역할은 하지 못하므로 ‘보조로’라고 칭하였다.

보조로는, 일부의 진입로와 함께, 다목적 공간, 예를 들어 주거에 부속되는 외부공간(이웃과의 교류, 세탁물 건조, 물품보관 등)으로 이용되며, 건물 보수시에는 공사용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볼 때, 보조로는 교-토(京都) 등의 마치야에 있어서 ‘로지(路地)’⁷⁾라고 하는 공동공간에 비견된다.



주) 가로폭의 실측치를 토대로 작성. 4단계는 표기생략.

그림 3. 東町の 가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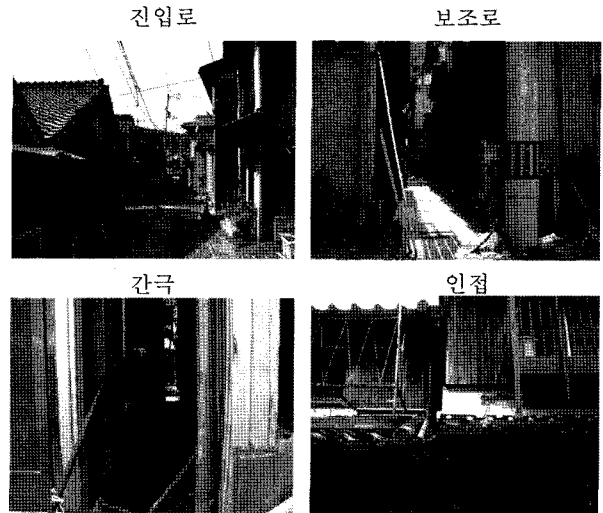


그림 4. 東町の 가로

4단계, 건물의 간극: 보조로처럼 민가의 측면 경계선상에 나 있지만, 폭은 0.45-0.6미터 정도로 보조로 보다 훨씬 폭이 좁다. 한사람이 게걸음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로 정상적인 통로로 보기는 힘들다. 바닥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간단한 건물보수행위가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건물의 ‘스키마(隙間)’이라고 부른다. 간극은 3단계인 보조로가 아니라 2단계인 진입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3단계에 해당하지만, 공간의 성격과 폭을 중시하여 4단계로 분류한다.

3) 가로체계의 특징

일반적인 도시의 가로체계는, 도시의 접근도로(‘지역 간선도로’) 이하, 대로(大通り) -중규모의 도로(通り, 폭 6-7미터 정도) -소로(小路, 폭 4-5미터 정도) -로지(路地, 폭 2-3미터)의 순으로 단계별 구성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⁸⁾. 이에 비하여 히가시마치의 가로망은 ① 대로와 중규모의 도로가 생략되어 있고, ② 접근도로에 소로(본고에서는 ‘진입로’로 호칭)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③ 같은 소로, 로지(본고에서는 ‘보조로’로 호칭)라고 해도 크기(폭)가 한 단계씩 작고, ④ 간극이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마치야에는 로지가 발달한다. 로지는 개별 주택 사이에 나 있는 길(가로)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주거생활 행위가 주저 없이 노출되며, 이웃과는 교류/소통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장소이다. 길이라기보다는 이웃간의 ‘개방된 공유공간’으로서, 마치야에서만 형성되는 독특한 공적공간이다. 그런데 히가시마치의 가로망은 더 규모가 작고, 더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로지의 성격을 띠는 공간이 ‘소로’에서부터 형성된다. 가로망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간극이 발달되어 있는 점으로도 설명된다. 일반적인 마치

7) ‘露地’라고도 쓰며, 원래는 다실(茶室)로 통하는 통로에 마련한 정원을 뜻한다. 지방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마치야에서 이웃간의 좁은 공간을 지칭하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중세시대 교-토에 있어서 秀吉의 ‘永代地子免除令’의 공포 이래 마을(町)의 공유가 되었다.

8) 島村 昇, 鈴鹿幸雄他(1971) SD選書59 [京の町家] 鹿島出版會 pp.79-80.

야에서는 히가시마치 만큼 간극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히가시마치 민가의 평면

1)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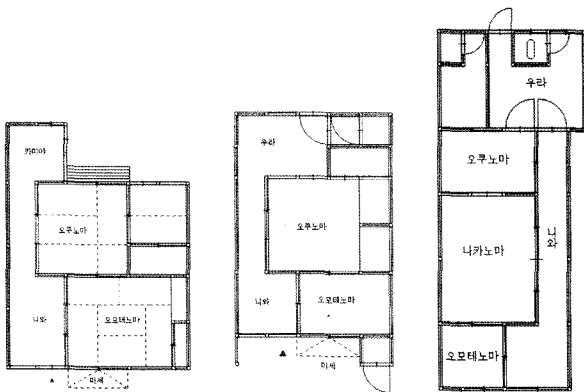
각 민가의 평면형태와 구성은 많은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 우선 민가의 평면은 방형의 부지에 빈틈이 거의 없이 들어차 있다. 따라서 평면의 형태도 방형을 이룬다. 전면에 출입구(현관)가 설치되고 측면은 다른 민가와 인접(연접)한다. 현관에서 안쪽까지는 맨땅으로 된 통로(通り)庭, 토오리니와(塙)가 나 있으며, 이 통로를 따라서 각 실이 배열되어 있다. 각실 별로 용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오리니와(通り)庭, 토마(土間): 바닷물에 젖은 신발, 장구를 차린 채로 안쪽에 위치하는 취사장, 변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맨땅으로 된 통로를 현관에서 안쪽으로 길게 설정하는데, 이를 토오리니와(통로형 토방: 저자 주)라고 부른다. 폭은 대략 반칸 정도이다. 각 실은 토오리니와를 따라서 사적성격이 강한 순으로 안쪽부터 배열된다. 토마(土間)는 글자 그대로 바닥이 맨땅인 방(토방: 저자 주)을 의미한다. 토마는 토오리니와의 출입구 부분을 약간 넓혀서 현관으로 사용한다. 폭 한 칸, 깊이 한 칸 정도로 한 평 정도의 넓이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오모테노마(表の間): 전면에 현관과 함께 나란히 배치되어, 주로 작업공간으로 이용되며, 응접/접객 용도로도 사용된다. 가옥의 양 측면이 타 가옥과 인접해 있고 후면에는 대개 창이 없으므로 실내는 대체적으로 어둡다. 전기도 없는 시대에 어로장구의 수선/정비 등의 작업을 하기에는, 외부로 면한 방, 곧 오모테노마가 적합했을 것이다. 토오리니와의 현관 부분을 약간 넓게 잡는 것도, 작업공간 확보의 의미가 있다.

나카노마(中の間): 오모테노마와 오쿠노마의 사이에 위치하는 여분의 방으로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다용도의 방이다(식사, 가족단란, 침실 등).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규모가 작으므로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

오쿠노마(奥の間): 나카노마가 있을 때에는 격식공간인 자시키(座敷)로 특정되기도 하지만, 나카노마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실, 가족단란, 식사, 응접/접객, 의식(불단) 등,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1) 貝塚宅 2) 西宮宅 3) 花野宅

그림 5. 東町 민가의 평면구성

우라(裏): 토오리니와가 끝나는 가장 안쪽 부분으로 취사장, 변소 등이 자리 한다. 취사장을 특별히 카마야(釜屋)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외에 우물, 목욕장은 각 호별로 따로 설치하지 않고 공동우물, 공동목욕장을 사용한다.

2) 평면형식

전술한 바와 같이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오모테노마, 나카노마, 오쿠노마 등의 각 실이 토오리니와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배열된다. 이렇게 구성되는 평면형식을 토오리니와형 평면이라고 하며, 이는 마치야의 전형적인 평면형식이다(다음절 참조). 즉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집주형태가 마치야 형태일 뿐만 아니라, 평면구성도 마치야의 전형인 토오리니와형을 따르고 있다. 마을 촌로의 인터뷰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평면을 유지해 왔다고 하며, 많은 부분이 개수/개조된 현재도 그 기본은 유지하고 있다(그림 5).

3) 평면규모

조사대상민가의 규모는, 대부분이 전면 2칸-3.5칸 정도, 측면 2.5칸-5칸의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치야에서는 전면의 폭에 비해서 측면의 길이가 2배 이상으로 세장한 형태를 취한다. 이에 반해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전면의 폭과 측면의 길이가 거의 같은 정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림 5의 1), 2)). 1.5배 이상인 사례는 전체 21사례 중에서 5례뿐이고, 길이가 전면 폭보다 더 짧은 경우도 적지 않다.

4. 미세의 평면상 고찰

1) 미세

‘미세(店, ミセ)’란, 일본의 시코쿠 동남부 해안 어촌마을의 민가에 설치한 지역 특유의 개구부 부설장치를 말한다. 전면 개구부에 설치하여 비바람을 막는 일종의 덧문(雨戸)으로, 상하 두 장의 판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의 문지방에 각각 경첩으로 부착되어 위아래로 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그림 6). 그 중 아래 것은 ‘하미세(下ミセ)’, 위에 것은 ‘상미세(上ミセ)’로 부른다. 하미세는 잠시 걸터앉을 수 있는 쪽마루(縁, 縁臺)로 사용되며, 어부의 작업대로 사용된다. 히가시마치의 민가 중에서, 현재 미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채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민가에 미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미세의 구조와 크기는 <그림 7>과 같다.

원래 미세는 마치야에서 상점(店の間), 또는 상품진열대

9) 구체적으로는 高知縣 安禮市 부근에서부터 室戸岬를 돌아 德島縣 海部郡 由岐町에 이르는 해안의 마을. 阿波のまちなみ研究会刊, 漁村集落の<景>-德島縣南漁村ミセ造りの街並み調査報告書 3쪽, 平成7年(1995년) 3월

10) 미세의 사전적 의미는, ① 상품을 진열하는 곳, 점두, 진열대, ② 유녀가 호객하는 곳, 좌대를 뜻한다. 기록에 의하면 江戸시대, 京都의 마치야에서 미세는, 점포의 진열대(店棚)로서 수납/개폐가 가능한 장치였다고 한다. 四國 동남부 해안마을에 존재하는 미세는, 사전적 의미 보다는 江戸시대의 것에 더 가깝고, 그것도 구조적인 면에 한정된다.



그림 6. 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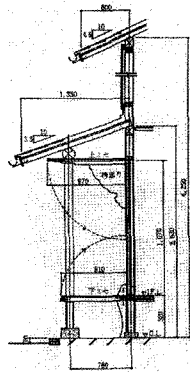


그림 7. 단면



그림 8. 로지

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¹⁰⁾. 그러나 히가시마치의 미세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품진열대도 아니다. 덧붙이자, 쪽마루이며 작업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특정한 지역에만 분포한다는 건축학적 희소가치에서, 이와 같이 미세(ミセ)를 갖춘 민가형식을 특별히 ‘미세츠클리(ミセ造り)’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미세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¹¹⁾.

2) 내부공간의 확장.

히가시마치에서는 현재에도, 현관 앞 미세 근처에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 놓고 보관 장소로 이용하거나, 세탁기를 놓고 세탁을 하기도 하고, 세탁물, 생선, 농작물 등을 말리는 등의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내부의 절대면적이 협소한 만큼, 일상생활행위가 외부·가로에 유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세를 중심으로 하는 처마 밑의 공간은 단순히 외부라고 하기 보다는 내부, 구체적으로는 토마(土間)의 연장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세 그 자체는 개방했을 때 걸터앉아 휴식을 취한다든지, 대화의 장소로 활용된다. 또 오모테노마에 앉아 있는 내부인은 문을 통해서 미세에 걸터앉은 외부인을 상대(접견)할 수도 있다. 미세를 제2의 접객공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미세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은 내부를 기준으로 하면 확장된 생활공간이다. 미세를 매개로 내부의 생활행위가 비교적 용이하게 외부로 유출된다.

3) 외부공간의 유입

현관 근처에 위치하는 오모노테마는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므로 외부공간의 성격을 지니는 내부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이루어지는 작업은 어로 장비의 수선/정비하는 등, 작업속성상 외부에서 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세는 이 오모테노마의 외부에 딸려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작업보조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바꿔말하면 미세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외부와 내부의 공간적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세는 외부를 기준으로 하면, 외부공간의 내부유입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다.

4) 공적/공유공간의 형성

미세는 이웃사람과 같이 걸터앉거나, 또는 상대하는 이웃 간에 로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아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 이용하는 등, 미세를 중심으로 타자와 공유하는 공간, 이웃과 교류하는 공간이 형성된다. 이는 공적공간의 확보일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마치야에서 공적공간인 로지를 히가시마치에서 더욱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로지가 히가시마치에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점은 미세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미세는 공적공간인 로지를 마치야에서보다 더욱 촉진시킨다.

이상과 같이, 히가시마치의 미세는 이를 통하여 생활공간의 확장을 촉진하고, 외부공간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며, 동시에 이웃과의 교류공간을 활성화시킨다. 미세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은 반내부, 반외부의 성격을 띠며, 평면상 주요 부분으로 다른 실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5. 어촌민가와 마치야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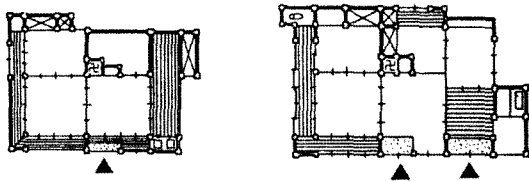
1) 어촌 민가의 평면

그간 어촌민가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왔고 할 수 있으나, 폭넓은 지역에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평면형태, 곧 어촌민가 평면의 일반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평면형의 분류를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를 드는 것으로, 타 어촌민가의 평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三重縣의 神島를 조사한 畑聰一의 연구¹²⁾에서는 평면형을 1열형과 2열형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千葉縣 千倉을 조사지역으로 한 齊藤輝二의 연구¹³⁾에서는 규모(방의 개수)별로 먼저 나누고 다시 4실형계(四つ間系), 횡열형계로 대분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의 평면분류를 대조해보면 호칭만 다를 뿐 유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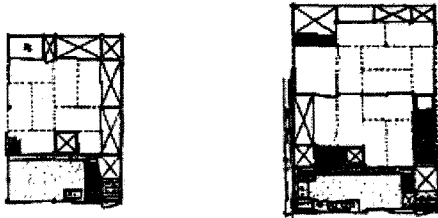
11) 미세를 「部戸, 部帳, 舞帳(ブッチョウ)」라고도 하는 사실에서, 일부에서는 그 기원을 平安시대의 신사, 궁전의 건물에서 쓰이던 창호인 部(しとみ)에 두고, 이 후에 상점의 점두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2) 畑聰一 (1981) 漁村住宅 の高密度住居形態にする研究(1) 住宅建築研究所報 No.7, pp.67-75

13) 齊藤輝二(1978-1979) 「農村建築」 農村建築研究會



1) 2열형(사실계)-횡열형계의 예 -千葉縣 千倉町



2) 1열형(H/目자형)-종열형계의 예-能本縣 牛深市眞浦

그림 9. 어촌민가 평면유형의 예

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실의 구성이 외출 아니면 두 줄이라는 점에서 횡열형계는 1열형에 대응하고, 4실형계는 2열형에 각각 대응한다. 한편 石橋和辛 등의 연구¹⁴⁾에서는 日자형/目자형으로 분류 예가 보이는데, 모두 1열형에 해당하며 입구방향이 횡열형계와 다를 뿐이다(따라서 ‘종열형계’라고 호칭할 수 있다: 저지주). 이상과 같이 그 간의 연구에서 보이는 어촌민가의 평면은 크게 1열형(종열형계/횡열형계)과 2열형(4실형계)으로 대별된다(그림 9).

그런데 이 두 평면형은 각각 농촌민가와 마치야의 평면형에 비견된다. 곧 2열형(4실형계)은 농촌민가의 전형적인 평면형식(소위 ‘田字型’이라고 부르는 형식)과 외형상/구성상의 특징을 같이하고 있으며, 1열형은 마치야의 평면처럼 외형이 길다란 장방형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열형의 경우는 마치야의 평면과 외형상으로는 유사하고 구성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차이점은 마치야에서 처럼 토오리니와 형식(다음절 참조)을 따르고 있지 않은 점, 곧 현관에서 안쪽에 이르는 맨땅의 내부통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으로 대표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히가시마치 민가의 평면(전절 참조)은, 2열형/1열형 중,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마치야의 토오리니와 형식의 평면이 다른 어촌에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① 三重縣 海山町 引本の 사례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② 德島縣 弁支町の 사례로서, 현재는 많이 개조되었지만 明治시대까지는 마치야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는 본고의 조사대상지역과 인접지역이므로 제외하면, 타 어촌의 마치야형식의 평면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 마치야의 평면형식

마치야는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주택의 전형을 일컫는다. 그것은 상인과 직인 주택의 총체로서, 대략 江戸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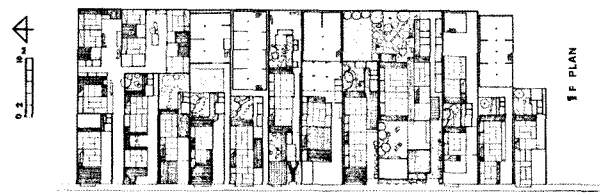


그림 10. 마치야의 평면 예(京都)

元祿朝(17세기 말경)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야의 평면구성법은 ‘토오리니와 형식’이 대표적이다. 그것은, 출입구에서 안쪽에 이르는 토오리니와를 한쪽에 두고, 미세노마를 필두로 안쪽으로 복수의 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면은 일반적으로 전면의 폭이 좁고, 측면의 길이가 긴 장방형의 형상을 한다.

일반적인 마치야와 히가시마치의 민가와와의 사이에, 평면의 구성과 각실의 용도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히가시마치 민가의 평면이 기본적으로 토오리니와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구성과 공간사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가운데 방인 나카노마(또는 다이토코)를 생략하고, 안쪽의 오후노마(또는 자시키)가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이 된다. 또 마치야가 직주(職住)겸용주택임에 반해서,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어로장구의 수선 등 생업의 일부작업을 내부에서 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전용주택이다. 마치야가 외부로 향한 상업공간과 내부로 향한 생활공간이 확연히 구분되는 2원적인 구성임에 반해,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1원적인 구성이다.

표 2. 실구성과 공간사용의 비교

	마치야	東町の 민가
오토테노마	매매공간, 접객	작업공간
	매매보조공간	작업보조공간
토오리니와	중간에 취사장	안쪽에 취사장, 변소
	안쪽에 변소, 욕실	욕실은 공용으로 별도
나카노마	식사, 가족단란, 침실	없는 경우가 대부분
오후노마	격식, 부부침실	식사, 가족단란, 침실, 접객

이외에 두드러진 차이는 주택의 규모가 마치야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치야는 규모가 작은 주택에 속하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더욱 작은 규모이다. 마치야의 규격이 일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전면폭은 3칸(5미터 정도)이 표준이고, 측면은 전면폭의 2-3배 길이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하여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측면의 길이가 특별히 짧다. 하지만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앞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욕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평면에 담고 있다. 전통주택의 극한(극소)규모를 절대수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일본

14) 石橋和辛・延藤安弘・横山俊祐(1989), 高密漁村集落における集住作法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九州), pp.41-42.

의 전통주택에 있어서 극소주택 또는 협소주택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 론

이상으로, 일본 四國 德島縣 남쪽해안의 어촌마을인 海部町の 토모우라(鞆浦) 히가시마치(東町)의 민가를 조사/고찰하였다. 그 결과 히가시마치는 일본 한 지방의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하지만, 이 마을의 민가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치야의 평면형식

어촌의 민가가 도시의 전형적 주택형식인 마치야(町屋)의 평면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다.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토오리니와(通り庭) 형식’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마치야 평면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가로체계도 도시처럼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민가의 성립은 히가시마치가 도시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을 받아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마치야와의 차이점

마치야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차이도 엄연히 존재한다. 가로구성상의 차이는 차치하고, 민가 평면형식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우선 극히 규모가 작은 점을 들 수 있다. 원래 도시의 마치야도 큰 규모가 아니지만,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그 보다 더 작은 규모이다. 하지만 단순히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기능을 모두 담고 있다. 일본의 전통주택에 있어서 극소주택, 또는 협소주택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다음에 마치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카노마 또는 자시기가 히가시마치의 민가에서는 대부분 생략되었다. 이와 같은 구성형식은, 규모가 작은 것과 관련짓는다면, 소규모화는 일부의 실을 생략하고 나머지 실의 기능에 유동화를 피하는 방법에 의해서 달성한 것이 된다. 또한 마치야는 직주(職住)겸용주택인데 반해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주거전용주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마치야가 상업용공간과 가족의 생활공간이 확연히 구분되는 2원적인 구성임에 반해, 히가시마치의 민가는 생활공간 중심의 1원적인 구성을 한다.

이와 같이 전체 규모가 작다든지, 나카노마가 생략되어 있다든지, 1원적 구성을 한다 라는 점들은 모두, 토오리니와의 길이가 짧다는 점으로 대표된다. 곧 히가시마치 민가의 평면은 마치야의 평면을 기준으로 할 때, ‘짧은 토오리니와형’, 또는 ‘토오리니와형의 간략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미세의 기능

지역 특유의 개구부 부설장치인 미세(ミセ)는, 도시의 마치야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장치-곧 상점에 부설되는 상품 진열대-의 기능을 갖지 않고, 덧문이자, 접이식 쪽마루이며 작업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히가시마

치의 미세는 이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공간 형성에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우선 그곳에서는 내부공간의 외부 확장, 또는 외부공간의 내부유입이 미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즉 미세는 일상생활행위의 유출을 유도하며 내부공간의 협소함을 보완하는 한편, 작업공간인 오모테노마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작업보조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미세는 로지(路地)를 사이에 두고 형성되는 이웃 간의 교류를 촉진시킨다. 원래 마치야에서 로지는 이웃 간에 공유하는 공적 교류공간의 성격을 갖는 가운데, 히가시마치의 로지는 미세에 의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세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은, 형식상 외부이긴 하지만 반내부 또는 반외부적인 성격을 가지며, 내부의 오모테노마, 오쿠노마 등에 못지않게 히가시마치 민가의 평면구성상의 주요요소이다.

참 고 문 헌

1. 德島縣史編纂委員會(1963), 「德島縣史 (1)-(6)」.
2. 德島縣史編纂委員會(1963), 「德島縣史 資料 (1)-(2)」.
3. 德島縣海部郡海部町教育委員會(1971), 「海部町史」.
4. 德島縣教育委員會(1982), 「阿波のひかり」.
5. 島村昇·鈴木幸雄他(1971), 「京の町家」 鹿島出版會.
6. 上田 馬·土屋敦夫(1975), 「町家/共同研究」 鹿島出版會.
7. 扇田 信 의 9인(1981), 「住居論(新建築學大系 7)」 彰國社.
8. 永原慶二·山口啓二 編(1983), 「講座/日本技術の社會史, 第七卷 建築」 日本評論社.
9. 妹崎昭夫·初見學·鈴木健大·菊地文(1995), 漁村集落における住居と集住のしくみ その1,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北海道), pp.19-20.
10. 妹崎昭夫·初見學·鈴木健大·菊地文(1995), 漁村集落における住居と集住のしくみ その2,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北海道), pp.21-22.
11. 竹內滋·渡辺貴介·村田尚生(1996), 近世における港町の空間構造に関する研究 日本都市計劃論文集 第31號, pp.277-282.
12. 矢口道大·須田眞史·前川哲·初見學·清水華子(1999), 離島漁村出羽島の民家と集落の變容 (1),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中國), pp.87-88.
13. 矢口道大·須田眞史·前川哲·初見學·清水華子(1999), 離島漁村出羽島の民家と集落の變容 (2),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中國), pp.87-88.
14. 社團法人德島縣建築士會 阿波のまちなみ研究會編(1994), 漁[村集落の<景>] 德島縣南漁村 「みせ造り」의 街並調査報告書.
15. 山本祥子·齊藤庸平(2001), 漁村集落の「つきあい」の場となる屋外空間に関する研究, 農村計劃論文集 第3集, pp.151-156.
16. 山田美貴·大場修(1995), 町家の外觀形式の地方性-町家地方形式に関する分布試論1, 日本建築學會近畿支部計畫系研究報告集 第35號.
17. 山田美貴·大場修(1995), 町家の内部空間の地方性-町家地方形式に関する分布試論2,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北海道), pp.269-270.
18. 山田美貴·大場修(1997), 町家の平面形式の地方性-町家地方形式に関する分布試論3,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關東), pp.243-244.

(接受: 2006. 6. 23)